

무등산 인왕봉 57년 만 시민 품으로... 23일 개통식

서석대~인왕봉 390m 구간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
 인왕봉에 데크형 전망대 설치해 광주시내 조망 가능

공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무등산 정상부 인왕봉이 오는 23일부터 상시 개방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무등산 서석대 일원에서 인왕봉 상시 개방 개통식을 할

다. 천·지·인왕봉 등 3개의 대표 봉우리로 구성된 무등산 정상부에는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0일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토지 사용 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서석대~인왕봉 390m 구간 곳곳에 탐방로를 조성했다.

인왕봉에는 데크형 전망대를 설치, 많은 탐

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왕봉이 57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며 “국립공원 탐방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인왕봉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한 공군부대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용일기자

의대 10곳 경쟁률, 작년비 ↑
 인하대 눈술 660대 1 ‘최고’

주요 10개 대학교 의과대학의 올해 수시 평균 경쟁률이 45.59대 1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7일 종로학원이 서울대 등 의대 10곳의 수시 경쟁률을 취합한 결과 483명 모집에 2만 2022명이 지원해 평균 45.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4.67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각 대학별로는 성균관대 의대가 125.73대 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대 115.59대 1, 가톨릭대(서울) 89.11대 1, 경희대 55.58대 1, 고려대 27.0대 1, 한양대 23.77대 1, 이화여대 20.85대 1, 울산대 16.24대 1, 서울대 12.30대 1, 연세대 9.88대 1 등의 순이었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지난해 49.43대 1에서 급락했다. 눈술전형 폐지가 직접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눈술전형 3명 모집에 861명을 지원해 287.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전형별로는 인하대 의예과 눈술전형이 8명 모집에 5286명이 지원해 660.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눈술전형(648.33대 1) 기록을 넘어 역대 부문별 경쟁률 최고 수치다.

성균관대 눈술우수자전형은 5명 모집에 3158명이 지원해 631.60대 1을 기록했다. 뒤이어 아주대 눈술우수자전형 398.20대 1, 가톨릭대(서울) 눈술전형 226.74대 1, 중앙대 눈술전형 203.42대 1 등의 순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 학생 수 감소에도 주요 상위권 의대 선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N수생 상당수가 눈술전형 등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요 7개 대학의 반도체·첨단학과 수시 경쟁률은 자연계 학과보다 낮게 형성됐다.

반도체·첨단학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16.49대 1로 자연계 학과의 20.47대 1보다 낮았다. 자연계 학과에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평균 경쟁률인 19.22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각 대학별로는 서강대 43.30대 1, 성균관대 31.10대 1, 이화여대 15.58대 1, 연세대 11.55대 1, 고려대 11.31대 1, 한양대 9.66대 1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에 신설된 첨단융합학부에는 128명 모집에 1280명이 지원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 대표는 “지원 상황으로 볼 때 반도체·첨단학과의 선호도가 급상승했다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 “자연계 평균 경쟁률에 대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수시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약학 계열 등에 동시 합격 시 예년처럼 등록 포기 상황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지난 30년 새 출산율 ‘반토막’ 1인 가구 비중은 20년 간 2배 ↑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절반으로 줄고 1인 가구 비중은 20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주요 통계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으로, 2013년 이후 열 번째로 발간됐다.

사회보장통계청은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했다. 51개 세부 정책영역, 총 25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아동건강발달, 청년고용, 최저소득보장, 주거의 안전성 등 167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2017년(10.1%)보다 높아졌다. OECD 평균(21.1%)보다는 6.3%포인트(p) 낮다. 세부 분야별로 보건 영역이 공공사회지출 대비 35.3%로 가장 많고 노인(23.4), 가족(10.7%)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225만가구에서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였으나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로 2배 이상 늘었다. 남성 1인 가구 비중은 25.2%로 약 4분의 1이지만 여성 1인 가구는 49.8%로 절반에 달한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1.7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고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다.

같은 해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했다. 25~34세 대졸자 평균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85%)보다 낮았다.

코로나19 2년차였던 2021년도 비만율은 37.1%로 1년 전(38.3%)보다 1.2%p 감소했다. 남성의 비만율(46.3%)이 여성(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낮아졌으나 40대만 39%에서 42.9%로 3.9%p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기초연금 지급률은 66.9%로 여성(71.9%)이 남성(60.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지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된다.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와 복지부(www.mohw.go.kr), 복지포(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요소수 없음’ 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영광 YEONGGWANG E-MOBILITY EXPO

-모빌리티 엑스포

2023. 10. 6. (금) - 10. 9. (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일원

개막식 축하공연

10.6.(금) 14:30~16:30

전국 100개 가요쇼

10.7.(토) 13:00~15:00

요정수 남경원 미니스터라디오

10.8.(일) 17:00~19:00

할인판매 행사 BLACKDAY

10.6.(금)-10.9.(월) 10:00~17:00

e-모빌리티 저렴하게 구매하는 절호의 기회!

삼륜전기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최대 30~50% 할인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품 대잔치!

10.6.(금)-10.8.(일) 16:30~17:00

10.9.(월) 15:30~16:00

에이치비 전기자전거 타보고 공기정리기

공연·드론체험 및 자율주행 경진대회

10.6.(금)-10.9.(월) 10:00~17:00

e-모빌리티 시승체험

10.6.(금)-10.9.(월) 10:00~17:00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KATECH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